

MD와 청년농업인 판로 확대 지원

<상품기획자>

농진청, 한국엠디협회와 교육·맞춤형 전문지도 공동 추진 협약 체결

청년농업인의 성장과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농촌진흥청과 온·오프라인 유통망 상품기획자(MD)가 힘을 모은다.

농촌진흥청(청장 박병홍)은 오늘 본청에서 사단법인 한국엠디(MD)협회(협회장 정재필)와 업무협약을 맺고 청년농업인의 유통·판촉(마케팅)역량 향상과 판로 개척 지원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한국엠디협회는 국내·외 상품기획자 약 2000명이 회원으로 가입돼 있으며, 중소기업 소상공인, 창업기업들

대상으로 판매 교육, 품평회 판로 개척 지원 사업을 전문적으로 펼치고 있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두 기관은 △상품기획 전문가 교육과정 운영 △청년농업인별 맞춤형 전문지도(컨설팅) 추진 △농산물 유통 관련 정보수집(모니터링)을 공동 추진할 계획이다.

농촌진흥청은 청년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 정착과 기술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영농 진압영농 정착-독립 경영 각 단계에 맞는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영농 진입 단계에서는 청년농업

인 4-에이치(H) 신규 회원 모집을 지원하고, 품목별 연구모임체 구성을 확대해 예비 청년농업인 유입과 공동체 육성을 추진하고 있다. 영농 정착 및 독립단계에서는 '청년농업인 경쟁력 제고사업'을 비롯해 선도 농가의 기술 전수로 청년농업인의 기술 자립을 돕는 '선도농가 기술이전 모델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또 청년농업인이 운영하는 농업경영체의 경영 상태 진단과 분석을 지원한다.

아울러 청년농업인을 위한 농정 정책과 지원 사업, 교육 정보, 창업 정보

를 '똑똑! 청년농부(www.rda.go.kr/young)' 누리집을 통해 제공하고 있다.

(사)한국엠디협회 정재필 협회장은 "판로 개척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농업인의 상품기획·판촉 역량을 향상시키고 청년농업인이 생산한 우수 농산물과 가공품을 널리 알릴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농촌진흥청 박병홍 청장은 "농산업 분야에서 기술 창업한 청년농업인들이 판로 개척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만큼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가시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청년농업인이 전문 농업 경영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김윤상 기자

전주농협, 생명보험 학습조직 발대식

NH농협생명 전북총국(총국장 이숙)은 지난달 28일 전주농협이 보험 추진 기반 확대 및 실적 견인을 위해 구성된 학습조직의 발대식을 가졌다고 29일 밝혔다. 학습조직의 명칭은 '우보레로, 정승만 과장을 중심으로 총 6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매주 1회 이상 정기적인 학습을 통해 보험상품의 이해를 높이는 동시에 연도대상 시상에 대한 동기부여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날 발대식에는 전주농협 조합장을 비롯해 경영진이 참석해 임명장 수여 및 보험추진 간담회가 진행됐다.

발대식에 참석한 이숙 총국장은 "생명보험 학습조직 활성화를 위해 학습 장소 및 교육자료 제공 등 총국 차원에서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전북 농업인의 보장자산 증대를 위한 미중용 역할을 할 수 있는 학습조직을 육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NH농협생명 전북총국은 지난달 28일 전주농협이 보험 추진 기반 확대 및 실적 견인을 위해 구성된 학습조직의 발대식을 가졌다고 29일 밝혔다.



실험, 주거취약가정 위해 초록우산어린이재단에 성금 기부

실험사회공헌재단(이사장 김윤식)은 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초록우산어린이재단(회장 이재훈)에 3억7천만 원을 기부했다고 지난달 29일 밝혔다.

실험행복한집프로젝트는 전통 한지 벽지·장판을 이용해 주거취약 아동·청소년 가구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회공헌활동이다. 이는 실험의 7대 포용금융 프로젝트 중 하나인 지역특화사업의 일환으로, 한지와 사회공헌을 연계해 전통문화의 새로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고자 추진됐다.

특히 프로젝트에 사용되는 전주한지는 습도조절, 항균력이성, 탈취 효과가 우수하고 유해물질을 저감해 주거취약 아동·청소년 가구에 쾌적한 환경을 제공한다.

실험사회공헌재단 우육현 상임이사는 "4년여간 우리 사회의 어두운 곳을 밝혀나가기 위해 함께한 실험과 초록우산의 위대한 협동의 힘이, 아이들을 위한 310개의 행복한 집이라는 뜻깊은 결과로 이어져 매우 기쁘다"며 "앞으로도 실험은 행복한집프로젝트를 통해 지역 내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안전한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계속해서 힘쓰겠다"고 밝혔다.

한편, 2019년 시작된 '실험행복한집 프로젝트'는 지난해까지 전국 200개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가구에 행복의 집을 제공했다. 올해 110가구를 목표로 총 누적 310가구에 인력한 보급 자리를 선물할 예정이다. /김윤상 기자

국내 종자산업 새로운 활로 모색

국립종자원, 종자산업진흥센터서 업계 대표들과 간담회

국립종자원(원장 김기훈)은 침체되어있는 국내 종자산업의 새로운 활로를 모색하기 위해 지난 4월 27일 종자산업진흥센터(전북 김제시 소재)에서 종자업계 대표들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종자 수출 활성화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밝혔다.

세계 종자시장은 지난 2020년 440억 불로 연평균 4%의 성장세를 기록하며 농업의 뜨는 시장으로 부상하고 있으나, 한국의 종자시장은 세계종자시장의 1.4%(6.2억 불)에 불과해 국내 종자산업의 새로운 활로 모색이 필요하다.

또한 지난해까지 연평균 5% 내외로 증가하던 종자 수출액이 올해 1/4분

기 들어서는 무, 양배추, 양파, 토마토 등의 종자 수출 감소로 전년 같은 기간 대비 13.3% 감소하는 등 종자업계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 종자 수출 활성화 방안 모색이 절실한 상황이다.

따라서 국립종자원은 종자 수출 활성화 방안을 찾기 위한 첫 단계로 이날 국내 종자업계 대표 40여 명과 종자 수출 활성화 간담회를 개최해 업계 어려움을 청취하고 수출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에서 종자업계는 종자산업의 새로운 활로를 찾기 위해서 수출 가능성이 큰 채소 종자를 중심으로 민관이 협업해 종자 수출 활성화 방안을 마

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이에 국립종자원 민·관·학이 함께 참여하는 종자 수출 활성화 전담 조직을 구성해 지금까지의 종자 수출 상황과 여건 및 문제점을 되짚어보고, 수출 관련 제도와 정부 지원사업, 해외 시장 다변화와 홍보, 민간 종자업계의 역량 강화 등 다각적인 면에서 종자 수출 활성화 방안을 올해 하반기까지 마련해 추진할 계획이다.

국립종자원 조경규 종자산업지원과장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국제 곡물 위기 상황이 가중되는 시점에서 이번 종자 수출 활성화 방안 마련을 통하여 종자산업이 농업의 새로운 미래전략 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윤상 기자

안전사고 예방·대응력 강화 | 바이오진흥원, 안전관리회의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원장 김동수)은 지난달 28일 진흥원 '안전사고 예방 및 대응력 강화'를 위한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고 지난달 29일 밝혔다.

이번 안전관리회의 및 현장점검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과 지자체의 안전관리 강화 요구가 높아짐에 따라 주요 인프라 안전 관련 현안 사항 공유와 시설 개선방안 등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또한 진흥원 단지 내 시설물 안전점검을 통한 근로자의 생명 안전 향상과 위험요인 발굴·제거·관리를 통한 안전점검 체계를 마련했다.

김동수 원장은 "안전경영이 현장에서 철저히 지켜질 수 있도록 안전보건 계획에 따른 전사적인 이행을 강조하고,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 주기적인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원장 김동수)은 지난달 28일 진흥원 '안전사고 예방 및 대응력 강화'를 위한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안전점검 강화를 통해 안전한 근로환경을 제공하는 기관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5월 프로모션 최대 50% 할인

전북생생장터, 김제시와 첫 시·군 협업

전북도와 전북경제통상진흥원(이하 경진원)이 전북도 대표 지자체 소공동인 전북생생장터에서 5월 가정의달을 맞아 50% 봉큰 할인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5월의 첫 번째 프로모션은 김제시 특별관 50% 할인 프로모션이다. 김제시와 협업으로 진행되는 행사로 김제시가 전북생생장터에 직접 입점해 김제시 우수제품 판매 활성화에 적극적으로 나설 예정이다.

이번 김제시 프로모션은 시·군과 공동으로 주관하는 첫 번째 프로모션으로 가정의달 쿠폰과 김제시 입장기념 쿠폰을 같이 사용할 경우 40% 할인을 받을 수 있다. 추가로 제휴카드(농협·전북)로 결제 시 10% 청구할인으로 최대 50% 할인 혜택을 받아 볼 수 있다.

두 번째 프로모션으로 코로나 19로 인한 의식업 부진과 과잉생산으로 판로가 막혔던 농산물 소비

촉진을 위해 전북 양파, 생강, 대파 등을 최대 25% 할인하는 농가 살리기 프로모션을 이달 9일부터 23일까지 14일간 운영한다.

마지막으로 매주 월요일 퇴근시간 18시에 맞춰 선착순 50명 한정으로 3천원 퇴근쿠폰 행사를 진행한다. 퇴근쿠폰은 발행 당일 23시까지 사용 가능하다. 뿐만 아니라 지난 4월에 첫 선을 보인 생생장터 프로모션은 이달 20일부터 7일간 최대 30% 특가 행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현용 경진원장은 "이번 5월 프로모션은 김제시와 공동 주관한 첫 시·군 협업 사례로 김제시의 적극적인 의지로 성사될 수 있었다"며, "이번 협업으로 온라인 판로 개척에 어려움을 겪던 지역 농가 기업에게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도 도내 시·군과 상호협력 체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윤상 기자

가정의 달 5월엔 '피크닉 Easy'

전북은행, JB개인카드 고객 대상 이벤트 시행

JB금융그룹 전북은행(은행장 서한국)이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JB개인카드 고객을 대상으로 5월엔 온가족과 피크닉 Easy' 이벤트를 시행한다고 지난달 29일 밝혔다.

지난달 29일부터 오는 20일까지 쇼핑, 주유, 대중교통, 항공 여행을 대상으로 누적 30만 원 이상 이용 시 추첨을 통해 1등 1명에게 LG프리뷰 미디어 탈모치료기, 2등 10명에게 SKII 클리어리션과 에센스 세트, 3등 30명에게 정관장 활기력(30ea)을 증정하며, 참여상으로 5,000원 캐시백 등 총 222명에게 경품을 증정한다.

이벤트 대상 업종에서 이용금액 30만 원 당 추첨권 1회가 제공되며 간편

결제 이용 시 추첨권 1회가 추가 제공된다. 이번 이벤트는 인터넷 혹은 모바일뱅킹, JB뱅크 앱, 고객센터 등을 통해 응모 가능하다. 이 외에도 직구를 포함한 해외가맹점에서 5만원 이상 결제 후 할부잔액 시 2~5개월까지 할부수수료가 면제된다.

카드사업부 관계자는 "JB카드와 함께 5월 행복한 가정의 달을 보내길 바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벤트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전북은행 영업점 및 고객센터(1588-4477), 홈페이지(www.jbbank.c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윤상 기자

온라인에서 잘 팔리는 상품 개발 지원

도·경진원·위메프, 도내 중기 모집... 프로모션까지 연계

전북도와 전북도경제통상진흥원(이하 경진원)이 도내 중소기업의 온라인 판로개척을 위해 위메프와 함께 온라인에서 잘 팔리는 온라인 전용 상품개발을 지원한다고 지난달 29일 밝혔다.

이번 경진원의 급변하는 디지털 소비문화로 인해 온라인 쇼핑이 비중이 높아지는 가운데, 전북 특색을 담은 온라인 전용 상품개발을 통해 도내 중소기업의 온라인 판매도 활성화하고, 전북의 브랜드 가치도 드높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게 됐다.

상품개발 지원사업은 시장조사부터 브랜드기획·상품기획·디자인기획·사후 판매마케팅까지 중소기업의 온라인 전용 상품개발을 위한 전 프로세스를 모두 제공한다.

아울러 개발된 제품에 대한 초기 브랜드 확립과 인지도 제고를 위해 프로

모션도 연중 지원할 예정이다. 프로모션은 위메프뿐만 아니라 전라북도 지자체소공동 '전북생생장터'와도 연동하여 지역개발상품이 지역 내에서 먼저 소비될 수 있도록 홍보와 판촉을 지원할 계획이며, 전북생생장터와 지난해 MOU를 체결한 카카오톡의 '독달'도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참여기업은 내달 13일까지 모집하며, 직접 제조 또는 OEM제조가 가능한 도내 중소기업만을 대상으로 한다. 모집된 기업은 서류평가와 현장평가를 거쳐 최종 선정된 후 6월부터 본격적인 사업 참여에 들어간다.

참여를 희망하는 도내 기업은 경진원 홈페이지(www.jbba.co.kr) 공고문을 참조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전북경제통상진흥원 온라인팀(063-711-2031)으로 문의 가능하다. /김윤상 기자

농식품유통공사, 윤리경영포럼 CEO 서약 참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사장 김춘진·사진)는 지난달 28일 산업정책연구원이 주관하고 국민권익위원회가 후원하는 윤리경영포럼(이하 윤경ESG 포럼)의 2022년도 제1회 윤리경영 CEO 서약식에 참여해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윤리경영 강화 의지를 밝혔다.

윤경ESG포럼은 2003년 기업의 윤리 및 지속가능경영의 확산을 위해 발족된 자발적 협의체로 공사는 기관의 윤리역량 강화 등 ESG경영 실천의지 강

조를 위해 이번 서약식에 동참했다.

공사는 지난해 4월 ESG경영을 선포하고 공공기관 최초로 '과학 기반 감축목표 이니셔티브(SBTi)' 가입, HMM 대한항공과의 협업을 통한 수출 물류류기기 극복, 지역 농수산식품 판매 확대를 위한 리빙방송 도입, 장애인 체육선수 채용 한센인 김치 나눔 등 ESG경영 실천을 위해 노력해왔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김춘진 사장은 "ESG경영은 이제 모든 기업의 의무일 뿐만 아니라 가장 선제적인 성장 전략"이라며, "지속 가능한 윤리경영 문화 정착으로 국민에게 신뢰받는 청렴한 공공기관으로 자리매김 하겠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